여수 앞바다 침몰 컨테이너 선주가 인양키로

"5개월내 모두 건지겠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영향으로 여수 앞바다에 침몰한 컨테이너 인양 작업이 본격화된다.

여수시는 1일 "'여수 업종별 어업협의회 어민대책위원회'(위원장 노순기·이하 대책위)가 사고 선박 선주인 싱가포르 'PAN UNITED.LTD' 측 관계자들과 만나 선주 측 보험사(North of England P&I)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인양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인양은 선주 측 한국 대리점인 'P&I 협정검정'이 총괄하되, 쓰레기 수거작업은 여수지역 업체가 맡게 된다.

인양 작업에는 5개월, 쓰레기 수거에는 8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락한 컨테이너 182개 중 인양이 마무리된 것은 25개다. 선주 측은 미인양된 157개 가운데 위치를 확인한 26개를 우선 인양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어민들은 컨테이너 인양과 관계없이 선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선주 측의 요청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 영국의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앤드루 터커 조사관은 지난달 27일 오후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해상에서 어민들이 수거한 컨테이너 적재물을 확인했었다.

당시 터커 조사관은 "컨네이너 적재물 중 3박스 분량의 황산·수산화나트륨은 바다 오염은 물론 심각한 피부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조속히 수거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여수 출신 김성곤(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컨테이너 인양에 따른 해군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측은 여수시와 어민들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주지법 청렴도 전국 최하위

부패방지 추진실태 평가

광주지방법원의 청렴도가 전국 69개 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표〉

1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동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해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2.2점을 기록, 전국 69개 법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지법의 지난해 평가 결과는 2004년에 비해 60단계 하락한 것이다.

광주지법은 특히 50점 만점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대부분의 지법·지원이 47점을 받은 것에 비해 2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총점 92.35로 전국 69개 법원 가운데 28위를 기록했으며 ▲순천지원(93.3) 18위 ▲목포지원(88) 62위 ▲장흥지원(89.6) 50위 ▲해남지원(91.1) 38위 ▲가정지원(89.25)이 54위 등이었다.

한편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는 대법원이 지난 2004년부터 각급 법원을 상대로 ▲청렴도(부패지수)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실태(업무 계획 및 집행) 두 가지 항목을 평가한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 법원 69개 부패방지 추진실태 평가

■상위 5위

2005년				
기 관	계획 (20)	집행 (30)	청렴도 (50)	총점 (100)
의정부지법	20.00	29.40	47.00	96.40
대전지방법원	20.00	28.80	47.00	95.80
대구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울산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대구의성지원	20.00	28.20	47.00	95.20

■하위 5위

2005년				
기 관	계획 (20)	집행 (30)	청렴도 (50)	총점 (100)
전주군산지원	18.00	21.75	47.00	86.75
창원밀양지원	18.50	21.15	47.00	86.65
부산지방법원	20.00	27.00	38.00	85.00
서울중앙지법	17.75	27.00	34.00	78.75
광주지방법원	18.50	26.70	27.00	72.20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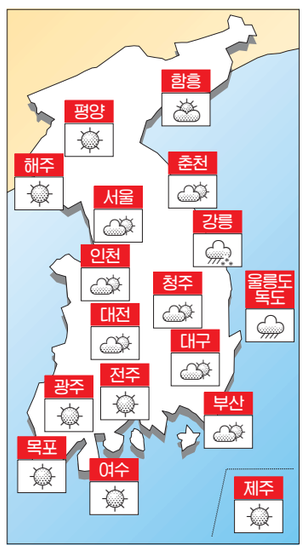
〈출처:대법원〉

옷깃 조금 세워볼까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조금.

11월 2일 (음 9월 12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아침안개	9~20℃
목 포	구름조금 아침안개	9~19℃
여 수	구름조금	14~20℃
완 도	구름조금	10~20℃
구 례	구름조금 아침안개	6~21℃
해 남	구름조금	5~20℃
장 흥	구름조금	6~21℃
고 흥	구름조금	7~21℃
순 천	구름조금 아침안개	6~21℃
영 광	구름조금 아침안개	6~20℃
진 도	구름조금 아침안개	8~20℃
전 주	구름조금 아침안개	8~20℃
남 원	구름조금	4~20℃
정 읍	구름조금	7~19℃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목 포 밀물 〈 11:16 23:42 썰물 〈 04:31 16:50
여 수 밀물 〈 06:24 18:49 썰물 〈 00:17 12:24

▲해뜸 06:54 ▲해짐 17:38 ▲달뜸 15:33 ▲달짐 02: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날 씨						
최저/최고	8/19	9/16	8/15	4/11	4/13	8/16

FTA 중단·수매제 부활 촉구

'광주·전남 농민연대' 야적시위 돌입

'광주·전남 농민연대'(이하 농민연대)는 1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한·미 FTA 저지와 수매제 부활을 위한 광주·전남 농민 투쟁 선포식'을 갖고 벼 1천500여 포대(40kg) 야적시위에 들어갔다.

농민연대는 야적 시위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과 수매제 부활 등을 요구했다.

농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수매제 폐지로 인해 농약값도 나오지 않는 말 그대로 쌀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며 "전남농업과 한국농업을 살리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해 11월 대항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농민연대는 또 ▲한·미 FTA 즉각 중단 ▲수매제 즉각 부활 ▲한반도 전쟁 책동 주범 미국의 한국 철수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각 시·군 농민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천막농성과 야적시위는 오는 22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반대 민중 총궐기 대회'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민주의 종' 타종 '제41회 광주시민의 날'인 1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각'에서 강박원 시의회 의장과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등 각 분야 대표 8명이 '민주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치료기술 개발

광주과기원 전상용교수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의 주도로 개발됐다.

1일 광주과학기술원(원장 허성관)에 따르면 생명과학과 전상용(35·사진) 교수팀이 미국 하버드 의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표적지향 약물전달 플랫폼'기술을 최근 개발했다.

전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전립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질인 리보헥산 압타머(RNA aptamer)에 대표적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을 결합시킨 '압타머-독소루비신 컨쥬게이트'를 만들어 표적인 전립선 암세포에 전달, 암세포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전 교수팀이 개발한 '압타머를 이용한 약물전달기술'은 기존 항체 치료법에 비해 암 조직에 대한 투과성이 높고 약물의 화학적 변형과정이 없어 더 나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교수는 "압타머에 기반한 표적지향 약물전달기술은 다른 모든 암의 치료방법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야적 벼 처리 벌써부터 걱정

전남도·지자체, 미질 저하·판로 고심

1일 '광주전남 농민연대'소속 농민들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벼 야적시위를 시작하자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11월7일부터 3개월여 동안 계속됐던 시위로 치렀던 홍역을 다시 앓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도 내 시·군 농민들이 도청 앞 광장에 쌓아 놓았던 벼는 40kg들이 1만1천여 포대. 3개월 여의 시위 끝에 야적됐던 벼는 시·군이 공공비축미로 추가 매입하고 일부는 회원농협의 종합미곡처리장(RPC) 원료곡으로 처리됐다.

벼 야적 시위가 되풀이됨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이 걱정하는 것은 시위 후 벼의 처리문제. 지난해 선례가 있는 만큼 시위가 끝나면 도나 시·군이 시위에 쓰인 벼 판로 확보에 앞장서야 할 판이다.

특히 야적이 장기화될 경우 벼 수분 함량 감소로 밥맛이 떨어져 전남쌀의 이미지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도 많다.

벼는 수분 함량이 15%대일 때 가공 후 밥맛이 가장 좋은데, 야적을 오래 할 경우 수분이 빠져나가 쌀에 금이 가기 쉽고 싸라기가 많아지는 등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야적됐던 벼의 품질이 나빠진 상태에서 외지로 팔려갈 경우 전남쌀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유상욱(45) 나주농민회 영산포 지회장은 "바닥에 깔판을 설치 한 후 벼를 쌓아 바람이 잘 통하고, 비닐과 보온덮개 등을 사용해 벼를 잘 보관하므로 미질 저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광주 교육재정 감안 시교위 "해외연수 취소"

광주시교육위원회(의장 이승연)가 광주시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1일 시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협의회를 갖고 올해 해외연수비로 편성된 1천600만원 전액을 반납하는 한편 내년도 해외연수비 2천만원도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위는 또 사용연한(5년)이 지나 5천500만원을 들여 교체할 예정이었던 관용차량을 내년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